

수단의 石油産業과 石油開發 현황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수단의 석유자원개발에 참여하려는 석유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安保(security) 문제이다. 1984년 2월 세브론의 캠프가 공격을 받은 이후 南部수단에서는 석유개발과 시추작업이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北部수단에서는 석유개발이 한층 강화되었다. 1985년 4월의 政權交替로 수단 人民解放軍(SPLA)의 게릴라에 대하여 宥和政策을 펴고 있으나, 아직 긴장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수단의 석유탐사활동은 1970년대 중반에 활기를 띠었으며, 당시 세브론은 수단의 南部와 南西部에 있는 Rift Valley盆地 51만6천평방키로미터에 대한 租鑛權을 갖고 있었다. 1975년에 시작된 시추작업의 결과는 상당히 유망했으며, 1980년에는 10만b/d 이상의 석유생산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지난 1984년 2월 3명의 직원이 살해된 Rub Kona 캠프에 대한 습격이 있는 후 세브론은 수단에서의 석유개발활동을 축소시켰다.

세브론은 1985년까지 87개 탐사정을 시추했으며, 이중 35개정에서 석유가 나왔다. 여러개의 유전이 발견되었다. 즉 Melut 부근의 Adar油田, Bentiu 북쪽에 있는 Unity와 Talih油田, Unity油田 북쪽에 위치한 Heglig油田, 그리고 Muglad 근처에 있는 Sharaf와 Abu Gabra油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油田들 가운데 Unity와 Heglig油田만이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잠재생산능력은 5만b/d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Abu Gabra油田만이 유일하게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원유는 침전탱크에서 淨油되어 南部에 있는 Darfur州 수도인 Nyala의

발전소연료로 공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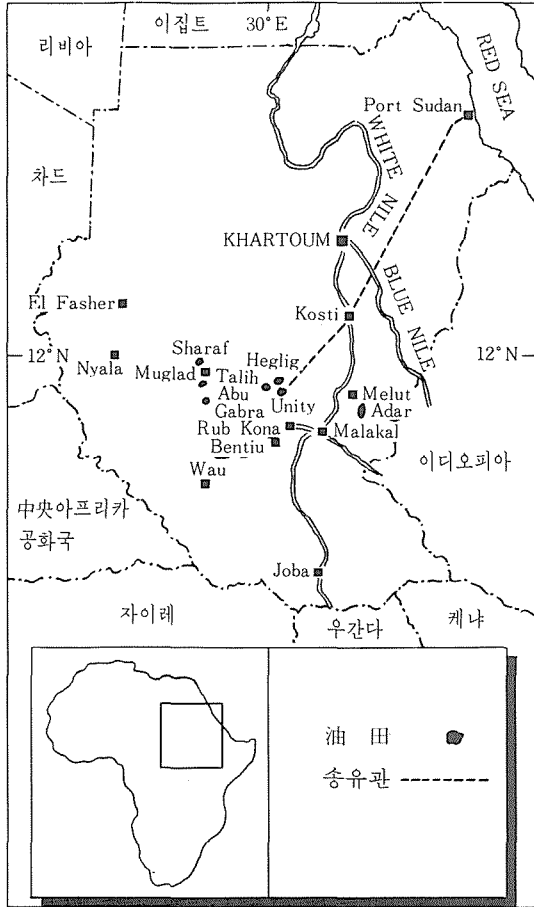
Total-CFP社는 수단의 수도 카툼에 새로 신축한 사무실빌딩을 세우고 시추관계직원 및 대부분의 직원들을 케냐로 이동시키고, 주로 수단의 南部에 위치하고 있는 24만8천평방키로미터의 租鑛區에서의 탐사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이로써 수단에서 석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석유회사로는 Sunoil만이 유일하게 남아있게 되었다. 1982년 同社는 Kosti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16만6천 평방키로미터의 租鑛權을 획득했으며, 1984년에는 카툼에서 北으로 빠져있는 Dongola鑛區로 알려진 6만7천평방키로미터에 대한 租鑛權을 추가로 확보했다.

Sunoil은 탄성과탐사탐과 시추팀 1개조씩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툼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Dar Ogeil 근처에 첫번째 탐사정을 뚫기 시작했다. Hurriya-1로 불리우는 이 탐사정은 지하 9000피트까지 시추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는 약 80km 南西쪽으로 시추할 예정이다.

정유공장건설계획

세브론이 개발한油田에서 생산되는 原油를 처리하기 위한 정유공장의 건설부지선정문제는 SPLA와 政府軍간에 벌어지고 있는 內亂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원래 정유공장은 南部에 있는 Bentiu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1981년 건설예정 부지가 北部에 있는 Kosti로 변경되었다. 1981년 8월 White Nile 석유회사(WNPC)가 설립되었으며, 주식분포는 수단정부가 42%, Chevron Nile Services社가 42%, 國際金融公社(IFC)가 8%, 아랍石油

수단의 지도



84년 5월 南部지역에서 작업을 재개하지 않는 석유회사는 그들의 租鐵權을 몰수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6월에는 또 油井塔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Unity 洲를 신설함으로써, 명목상으로 Bentiu와 Unity Heglig 油田을 南部수단에서 분리, 카툼의 管轄하에 두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Adnan Khashoggi의 Sigma 그룹이 수단국영석유공사(NOCS)의 주식 50%를 인수했다고 발표되었다. NOCS는 모든 석유관련 시설을 맡게 되며, 기존 석유회사들은 南部의 석유 개발활동을 재개할 경우에 한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한 보도에 따르면, Sigma 그룹은 재정보증을 하지도 않았으며, 수입관세도 면제받고 국유화도 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이것은 속임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니메이저대통령은 NOCS 件이 비준되기 전에 실각했다.

적극적인 대책

Osman Mussa 신임에너지장관은 南部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분명히 Bentiu에 정유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송유관건설계획을 포기하라는 SPLA의 요구에 동정을 갖고 있으나, 이 계획을 취소할 경우, 석유회사들은 석유생산시설들과 직원들에 대한 습격을 피하기 위해 수단의 北部에서만 사업활동을 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Mussa 장관은 최근의 정부의 宥和政策이 좋은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하면서 南部지역의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곳에도 몇개의 정유공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Bentiu에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원유를 정제하기 위해 1400km나 멀리 수송했다가 제품을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Musa 장관은 정유공장과 수출용 송유관 건설의 최종 立地선택은 경제적·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金融機關들은 수단에 대규모 정유공장건설을 위해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는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정제품이 투자액을 상환하기 위해 수출되 기보다는 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投資公社(APIC)가 8%로 되어 있다.

WNPC는 2만5천b/d의 수송능력을 가진 Kosti 정유공장까지의 송유관건설을 검토했으나, 수단정부는 1982년 8월 紅海의 수단港까지 총연장 1425km의 수출용송유관을 건설키로 결정했다. 이 송유관은 5만b/d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으며, 앞으로 20만b/d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송유관건설계약은 이탈리아의 Snamprogetti 社가 이끄는 컨소시엄에 낙찰되었다.

SPLA가 Rub Kona의 세브론 캠프를 습격하고 이어 세브론과 Total 社가 南部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이 송유관건설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수단의 니메이리 前대통령은 개발활동을 재개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다. 그는 19

수단정부는 Snamprogetti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송유관건설의 옵션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8만달러씩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수단의 석유산업을 위해서는 불행스럽게도 1986년 4월로 예정된 총선후에는 노력형의 기술관료인 Musa 장관은 유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세브론의 Rub Kona 베이스 캠프에는 세브론의 수단현지채용직원 몇명과 함께 시설물을 경비하고 있는 소규모 육군파견대가 상주하고 있을 뿐이다. SPLA의 존재는 현재 미미한 것 같으나, 다른 게릴라부대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Dinka, Nun, Bagra 등 部族들이 다투고 있다. 비록 SPLA가 화해한다고 해도 現地の 불안정은 세브론의 즉각적인 활동재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수단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인 세브론은 당분간 인내심을 갖고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세브론이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사우디의 원조

1985년 5월의 구테타 이후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는 3개월분 원유공급량 30만톤을 수단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원유는 인도가 완료되었으며, 사우디는 추가원조는 하지 않

았다. 그러나 수단은 리비아와 원유공급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 첫선적분 30만톤이 9월에 도착하여 수단港에 있는 정유공장에서 정제되고 있다. 이 정유공장은 2만5천b/d의 정제능력을 갖고 있으며 4만5천~5만b/d에 달하는 수단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美国国际開發處(USAID)는 상품수입계획에 의거 부족한 석유제품을 수단에 제공해 오고 있다. USAID는 1985년 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2천만달러 상당의 석유제품과 潤滑基地를 공급했다. 수단은행도 2천만달러를 기부했다. General Petroleum Corp. (GPC)는 1986년도 석유소비 계획을 마련했으며, USAID와 수단의 재무부는 현재 4천만달러 상당의 금년도 추가원조에 관한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換率과 수단은행의 기부금제공시기에 관한 문제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6개월동안 수차에 걸쳐 GDC는 단기 비상수급대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수단은행에 요청했다. 소량(4,000~6,000톤)의 가스오일과 기타 제품은 Shell, Agip, Mobil, Total 등 4개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구입해 오고 있다. GPC 부사장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은 과거 수년 가운데서 공급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

(피트롤리엄 이코노미스트 1985. 12)

